

인권정보자료실

NSL1.87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숍

때: 2003년 7월 3일

곳: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 크 샵

- 때 : 2003년 7월 3일 늦은 3시
-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 통일맞이늦봄문익환독사기념사업회, 통일연대

양동진 객좌위원

## 자료집 목차

- 진행순서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경과보고
- 해외통일인사와 함께하는 범민련 후원의 밤 참가를 위한 해외통일인사  
입국불어에 대한 기자회견 자료
- (가칭)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사업계획서
- 입국불어 해외민주인사 현황 자료
- 추진위원 가입신청서

## 애워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숍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인사말씀 및 취지 설명
- 애워민주인사 관련 video 상영
- 사례발표
  1. 한봉련 대책위
  2. 송두올교수 귀국사업  
추진위원회
- 향후 사업계획 발표
- 참가자 전원 추진위원 가입
- 폐회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경과보고

2000. 10. 2 이기욱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황인성(前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김지영(의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17명의 인사가 모여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이를 추진해 나갈 대책위원회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7인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다.
2000. 10. 11 1차 실무위원회 개최. 5인 내외의 공동대표와 150인 내외의 대책위원을 두기로 하다.
2000. 10. 19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명예회복신청서'를 제출하다.
2000. 10. 20 대책위원회 제안서를 채택하다.
2000. 10. 26 이기욱 집행위원장, 임종인 조직위원장, 한홍구 홍보위원장, 김진국 재정위원장, 유한범 사무국장 등으로 실무인선을 하다.
2000. 11. 2 결성식을 12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법무법인 창조'에 두기로 하다.
2000. 11. 10 강만길 교수, 고영구 변호사, 김승훈 신부, 이창복 의원, 홍근수 목사의 5인으로 공동대표를 확정하다. 또 고문으로 이돈명 변호사, 박용길 장로를 모시기로 하다.
2000. 11. 14 한통련에 결성식 참가를 요청하는 초청장을 발송하다.
2000. 12. 6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하다.



2000. 12. 하순 청와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에 대해 논의하다.
2001. 1. 1 공동대표 명의의 연대 메시지 발표
2001. 2. 19 국가정보원 국장 등을 면담하고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요구하다.
2001. 2. 28 한통련 회원 15인이 신청한 여권발급거부에 대해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다.
2001. 4. 22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한국 무조건 자유왕래를 위한 대책위원회(일본 대책위) 결성총회에 홍근수 공동대표, 이기욱 집행위원장 등 4인 참가
2001. 9.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 등에 '해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학술 회의' 공동주최 또는 후원 요청
2001. 11. 29 일본 대책위에서 받은 10만여명의 서명용지와 한통련 대책위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함.
2001. 11. 29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에서 심포지엄 "해외동포와 한국민주화운동"을 개최하다.
2002. 4. 19 한통련 대책위 한일 합동회의, 일본대책위 결성1주년 모임,  
~ 4. 21 한일연대 민중의 밤 참석(고영구 공동대표, 이기욱 집행위원장, 한홍구 홍보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박갑주 변호사)
2002. 8. 30 서울행정법원, 한통련의 여권발급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여권발급거부처분이 정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판결
2002. 9. 16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자유왕래보장을 위한 한일 공동성명서' 한겨레신문에 하단통광고로 게재
2002. 9. 19 한통련 회원 7명,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관람을 목적으로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2002. 10. 9 주일본대사관,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통보
2003. 1. 14 한통련 신년회 참석(유한범 사무국장)
2003. 1. 29 '대통령 취임식 한통련 초청' 요청공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접수
2003. 2. 23 오마이뉴스 '민주화운동 불구 친북활동 누명 [한통련] 꿈에도 가고  
픈 고국산천' 기사게재(임종인 조직위원장)
2003. 2. 23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반한 베트남-한민통의 진실' 방영
2003. 3. 6 국가인권위원회에 '여권발급거부 취소' 진정 접수
2003. 4. 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통련을 광주인권상 후보로 추천
2003. 5. 16 2003년 한일대책위 합동회의(이기욱 집행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고  
상만 사무차장 참석). 5. 18일까지 진행
2003. 5. 19 주일본대사관, 김지영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의 여권갱신 발급 신  
청 거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동 65-82번지 2층 전화 847-6152 전송 844-8604

전자우편 : bummsoo@jinbo.net 담당 김수연(019.305.8422)

## 보 도 자 료

### 법무부의 '해외 통일인사와 함께 하는 범민련 후원의 밤' 참가를 위한 해외통일인사 입국불허에 대한 기자회견

1. 일시, 장소 : 2002년 12월 11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 종합 청사
2. 기자회견 순서
  - ① 경과보고(자료 별첨)
  - ② 법무부 답변 보고(자료 별첨)
  - ③ 입국 불허된 해외 통일인사 29인 중 2인이 보낸 서한 낭독(서한 별첨)
  - ④ 입국 불허 항의 서한 낭독 및 전달(항의서 별첨)

1. 민족 정론지로 씬없이 뛰어다니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은 영원하시는 각 계 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해외 통일인사와 함께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 밤'을 발기하고 29인의 해외 통일인사 초청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 해외에서 고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써오신 통일인사 29인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사회질서를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전원 불허 통보하였고, 이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4. 별첨 1) 해외 통일인사 초청 경과서  
2) 법무부 답변서  
3) 입국 불허에 대한 해외 통일인사 서한(미국 양은식, 캐나다 정학필)  
4) 항의 서한



## 주 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후원회(직인 생략)

공동대표 : 김승훈(신부), 명진(스님), 이규재(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

운영위원 : 김승호(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최규엽(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 임종철(평화와 통일와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장창원(오산 다승교회 목사), 최용철(두리출판사 사장), 이명선(연지근지 대표), 정인숙(씨알 여성회 사무국장)

감 사 : 이덕우(변호사)

## 해외 통일인사와 함께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후원의 밤 행사 고문

곽태영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국민연대	유태상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	윤한탁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미혜 반미여성회 공동의장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수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의장
김상일 통일맞이 한신연대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남북기자교류위원회 위원장
김순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전창일 민족화해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
김홍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조순덕 민가협 의장
서경원 전 국회의원, 자통협 고문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송금산 전국소형어민총연합 회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황 건 사월 혁명회 상임대표

## [별첨1] 해외통일인사 조청 경과

1. 10월 22일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 운영위 회의에서 '해외 통일인사와 함께 하는 범민련 후원의 밤' 발기
2. 10월 30일 범민련 후원회 운영위 회의에서 해외 통일인사 29인 명단 확정
3. 11월 10일 행사 고문 발기
4. 11월 11일 법무부 교섭단 확정(한상렬, 권오현, 이덕우, 임종철)
5. 11월 18일 법무부 입국심사과에 입국심사요청
6. 12월 05일 법무부로부터 해외 통일인사 전원 입국 불허 통보(자료 별첨)
7. 12월 05일 해외 통일인사 전원 입국 불허 규탄 성명 발표(자료 별첨)
8. 12월 06일 불허 사유 관련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9. 12월 07일
  - 범민련 후원회 공동대표 이규재,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 권오현 선생께서 불허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방문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면담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15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는 간단한 설명이 있었음
10. 12월 07일 입국 불허 '정보공개' 요청

**[별첨2] 법무부 답변서**

"기초 전서문 지키자"

**법 무 부**

우427-720/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3-7097 /전송 02-503-7098  
 입국심사과 과장 민광식 서기관 성락승 담당자 정용섭

문서번호 입국61500-1420

시행일자 2002/12/03 (1년)

공개여부 ( 공개 )

수신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장

참조

제목 해외인사 초청관련 의견회신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번호	결재	
처리과		공람	
담당자		심사일	
심사자			

1. 귀회 후원 02-15(2002. 11. 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후원회에서 초청하고자 하는 해외인사는 입국을 허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로 보이므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조총련계 등 북한적 인사의 입국절차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통일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장관



### [별첨3] 입국 불허에 대한 해외 통일인사 서한

#### 1) 미국 양은식

#####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의 밤 행사 참가 남한 입국 불허에 대해 “해외에 사는 우리로서는 조국의 정부가 부끄럽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님과 여러 동지들에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의 밤 행사에 해외인사 참가 신청이 한국 법무부에 의해 불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36년 전 떠났던 남조국의 산하를 보고 사람들을 만날 희망에 차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으나 조국을 잊지 못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입국을 허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어” 불허한다는 말은 우리를 테로범이나 무슨 흉악범으로 보는 태도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정부라는 것이 자신이 없나 애처럽기도 합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로서는 조국의 정부가 부끄럽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이 무르익어 휴전선의 지뢰도 제거하고 반세기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연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부의 태도는 아직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선진조국을 지향한다 하면서 70년대로 뒷걸음질하는 듯 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통일은 이제 역사의 대세이며 명령입니다.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뵙지 못하지만 곧 우리가 만나 열싸안고 춤출 날이 오고 있습니다.

남측본부 성원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6·15공동선언 실천에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열렬히 기원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미주본부 상임의장

양 은 식



## 2) 캐나다 정학필

**조국통일투쟁을 계속 밀면 서울 방문도 실현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선 범민련 결성 12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를 하나로 묶어 남과 북 해외가 연대하여 더욱 가열차게 투쟁을 벌려 나가기 위하여 결성한 저희 범민련 12년의 투쟁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 투쟁의 선봉에 서서 가장 엄혹한 상황을 헤쳐가며 싸우시는 남측본부 성원들의 투쟁에 멀리 해외에서 연대하며 성원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은 이번에 남측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범민련 후원의 밤> 행사에 해외 통일운동 인사들의 입국사증 발행을 거부한 것을 저희들은 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하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밀고 나가노라면 해외통일운동 인사들의 서울 방문도 실현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때에 저희가 서울을 방문하여 투쟁의 선봉에서 달리던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운동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남측본부 성원들의 건강과 투쟁에서의 성과를 축원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캐나다지역본부 의장

정 학 필



#### [별첨4] 해외통일인사 입국 불어에 대한 항의 서한

지금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법무부가 있는 이곳 정부종합청사 앞에 섰습니다. 근거 없는 정치적 판단으로 인권과 통일의지를 가로막는 정부부처의 행정편의주의와 보신주의에서 우리는 또다시 분단의 고통과 모순을 실감하게 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와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번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의 밤을 준비하면서 분단의 지난 세월 조국의 통일을 위해 이국땅에서 노력해오시던 해외동포들을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으로 수만명의 동포들이 남북을 오가고 철길과 도로가 열리는 지금, 여전히 이적의 굴레속에서 고통받는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에 대해 각계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이 자리에 해외동포들도 모셔서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감수해 온 통일인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초청한 해외동포들 중에는 젊은 20대에 유학을 떠나 군사정권이 만들어 낸 사건으로 인해 해외를 떠돌다가 백발이 되어 구순이 되실 어머니를 그리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민주화운동이 된 광주항쟁 소식에 울분을 참지 못해 고국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나섰다가 정권에게 미운털이 박힌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는 우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치셨습니다. 고향땅을 영영 밟지 못하리라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그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뜻을 결코 꺾지 않으셨던, 민족애와 조국애의 화신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분단된 이 땅에 살면서도 나라의 민주와 통일을 외면하며 살기도 하는데, 이역만리 먼 외국에서 살아가면서도 조국애와 민족애를 잃지 않고 작은 힘이나마 기꺼이 바치려고 하셨던 동포들 마음이 소중하였기에, 우리는 함께 만나 손잡고 지난 수고를 위로하며 통일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으로, 남북공동행사로 북쪽 땅을 밟은 남녘 동포들의 숫자가 수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대규모 응원단이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 남북의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일본의 총련계 동포들의 고향방문도 6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사회의 질서', '민감한 시기' 를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삼십분이 채 되지 않는 이분들이 국제테러범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지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남북의 화해, 통일과 민족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국이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 는 법무부의 입장은 차기 정권을 구성할 모든 후보들의 입장과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냉전적, 반통일적, 비인권적인 망언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답변을 연기하거나, 면담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태도는 국가행정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6.15시대에 통일과 화합의 대세를 거스른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역 땅에서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동포들에게 가한 '사회의 질서를 해 한다' 는 모욕적인 대접을 당장 철회하고 입국을 허용할 것을 법무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2년 12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후원회

## 가칭)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사업계획서

### □ 사업의 의의

- 해외에서 진행된 한국민주화운동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해외민주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해외민주인사들의 본국왕래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인 입국 불허 해외민주인사들의 귀국을 추진함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 귀국 성사를 위한 1차 시기

- 2003년 9월 한가위를 목표로 1차 사업을 추진한다.

### □ 귀국성사를 위한 사업

#### 1. 해외민주인사 현황과 자료의 정리

- 해외민주인사의 약력과 활동상을 자료로 정리한다.
- 가능한 한 해외민주인사들을 방문하여 다큐 VIDEO를 제작한다.

#### 2. "가칭)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식

- 일시 및 장소 : 2003년 7월 18일(금)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 취지
  - 기간 단체별로 진행되어 온 사업의 성과를 범국민 추진위원회(가칭) 결성으로 모아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이다.
  - 9월 귀국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이다.
  - 이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단체들을 범국민 추진위원회(가칭)로 모아내고 향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세워낸다.



○ 내용

- 인사말씀 및 경과보고
- 입국불허 해외민주인사들의 2차 자료 현황 보고
- 해외민주인사들의 영상 메시지
-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향후 사업계획 발표

○ 참가 대상 : 추진위원으로 가입한 인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9월 귀국사업 추진 때까지 여론의 파고를 높여 가기 위해 다양한 여론사업

- 주 1회 대국민 캠페인
- 릴레이 1인 시위
- 자료집 발간 및 신문, 잡지 기고
- 민가협 의 목요일 집회 결합
- 인터넷 홍보사업
- 주요 방송사에서 기획 프로그램으로 해외민주인사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한다.

4. 법률적 정당성과 성사과정에 대한 검토 및 세계 인권진영과의 연대 문제

- 민변차원 등의 검토방향 모색 : 정부측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자료정리
- 유엔 인권위 제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 검토

5. 정부의 각종 관련기관과의 교섭

- 추진위(가칭)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 해외민주인사들의 귀국을 위해 국회청원을 통하여 국회차원의 결의를 촉구한다.
- 입국불허 해외민주인사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 각 단체별로 정부측과 열려있는 통로를 최대한 활용한다.

6. 9월 한가위 귀국행사

## 7. 일정별 사업흐름

- 6월 말 : 해외민주인사 1차 자료정리 완료
- 7월 3일 : 워크숍 개최
- 7월 중순 : 해외민주인사 2차 자료정리 완료
- 7월 18일 : 가칭)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 위원회 결성식
- 8월 중순 : 해외민주인사들의 귀국보장을 위한 법적 자료정리 및 법무부에 입국을 위한 서류를 제출
- 8월 초 ~ 9월 중순 : 대국민 선전 및 여론사업 진행
- 9월 한가위 : 귀국행사 진행



**입국불허 해외민주인사 현황 자료**

# 1. 정 경 모

성 명	정경모(鄭敬模)	국 적	무국적(망명)
생년월일	1924년 7월 11일	주 소	[REDACTED]
여 권		E-mail	
직 업	시사평론가, 문필가 「씨알」 발행인	연락처	[REDACTED]

## [약 력]

- ▶ 1924년 7월 11일 서울출생  
경기중학교, 일본 게이오대학 의학부, 서울대 의대, 미국 에모리대학
- ▶ 1950년-53년 정전회담 통역관 참가, 주일 미군 한국어교사
- ▶ 1956년 귀국, 포항제철 설립에 참여
- ▶ 1970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반대하며 일본으로 망명, 반체제 인사로 입국 불허
- ▶ 1973년 일본의 세카이(世界)에 시사평론가로 글을 실기 시작한 이후  
일본에서 한국 시사평론가, 문필가로 활동  
「씨알 어학숙」 설립 운영  
「씨알의 힘」 잡지 발행 시작
- ▶ 1980년대 5월광주항쟁 당시 성명서 발표 및 시위전개, 한통련 활동에 참여
- ▶ 1989년 늦봄 문익환 목사와 방북 4.2공동선언 발표에 참여함

## [입국불허사유]

- ▶ 1970년 노태우 정권까지는 박정희 독재 정권체제에 반대하여 일본으로 망명한 것이 입국입국 불허의 사유였음
- ▶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여운형 선생 추모행사를 일본에서 개최하며 북쪽의 여연구 선생과 교류가 있었으며, 89년 문익환 목사방북 동행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국 불허됨

## [현재 상황]

- 귀국추진위원회(대표 이재정 통일맞이 이사장)가 20여명의 참여로 구성돼 있음
- 정부기관의 입장은 89년 문익환 목사 방북에서의 역할, 방북 과정, 북녘에서의 활동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의 절차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임

## [가족 사항]

성 명	정성모	관 계	친동생
주 소	[REDACTED]	연락처	자택 : [REDACTED] 직장 : [REDACTED] 휴대전화 : [REDACTED]
직 업	합동번역사 대표 「씨알」 한글판 발행인		

## 2. 송 두 올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독일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과 교수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가족사항			

## 3. 임 민 식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42. 10. 30	집전화	
국적	덴마크	직장전화	
여권번호	██████████	Fax	
직업		E-mail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가족사항			

## 4. 양 동 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37. 3. 24	집전화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	Fax	
직업		E-mail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의장			
가족사항			

## 5. 직 절 교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31. 7. 9	집전화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	Fax	
직업		E-mail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부의장			
가족사항			

## 6. 강 중 언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51. 9. 16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부의장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위원장			
가족사항			

## 7. 광 영 지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57. 11. 3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사무국장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선전국장			
가족사항			



### 8. 이 정 수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64. 9. 12.	집전화	[REDACTED]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REDACTED]	Fax	[REDACTED]
직업		E-mail	[REDACTED]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청학련 해외본부 공동의장			
-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위원장			
가족사항			

### 9. 이 영 빈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26. 7. 7	집전화	[REDACTED]
국적	독일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REDACTED]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자문위원			
-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 회장			
가족사항			

### 10. 김 순 환(여)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28. 5. 28	집전화	[REDACTED]
국적	독일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REDACTED]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자문위원			
-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 총무			
가족사항			
- 이영빈목사 부인			



### 11. 안 계 일(여)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31. 8. 8	집전화	
국적	독일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중앙위원			
가족사항			

### 12. 김 성 수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36. 3. 8	집전화	[Redacted]
국적	독일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독 귀향촉진회 상임위원			
- 한독협회 회장			
가족사항			

### 13. 신 옥 자(여)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41. 10. 12	집전화	
국적	독일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중앙위원			
가족사항			

#### 14. 이준식

개인 정보		연락처	
생년월일	1947. 8. 15	집전화	
국적	독일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의장			
가족사항			

#### 15. 석명순

개인 정보		연락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우즈베키스탄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국제 고려인통일연합회 명예위원장			
가족사항			

#### 16. 조윤애

개인 정보		연락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우즈베키스탄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독립국가협의회 지역본부 의장			
가족사항			

### 17. 주 영 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우즈베키스탄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국제 고려안통일연합회 부위원장			
가족사항			

### 18. 전 순 영(여)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27. 5. 22	집전화	
국적	캐나다	직장전화	
여권번호	[Redacted]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 캐나다코리안연합회 회장			
가족사항			

### 19. 정 학 필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36. 12. 10	집전화	
국적	캐나다	직장전화	
여권번호	[Redacted]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캐나다지역본부 의장			
가족사항			

**20. 양 은 식**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37. 11. 2	집전화	
국적	미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REDACTED]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재미본부 상임의장			
가족사항			

**21. 유 태 영**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30. 9. 27	집전화	
국적	미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REDACTED]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재미본부 공동의장			
가족사항			

**22. 배 강 용**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41. 9. 25	집전화	
국적	미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REDACTED]	Fax	
직업		E-mail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재미본부 부의장			
- 한민련 재미본부 의장			
가족사항			



### 23. 곽 동 의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REDACTED]
국적	한국	직장전화	[REDACTED]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직업		E-mail	[REDACTED]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가족사항			

### 24. 김 정 부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49. 11. 1	집전화	[REDACTED]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REDACTED]
직업		E-mail	[REDACTED]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기획실장			
가족사항			

### 25. 손 마 앵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REDACTED]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REDACTED]
직업		E-mail	[REDACTED]
주소	[REDACTED]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사무총장			
가족사항			



## 26. 김 장 오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55. 12. 7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오사카본부 본부장			
가족사항			

## 27. 박 남 인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편집국장			
가족사항			

## 28. 김 영 희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국제차장			
가족사항			

### 29. 문 세 연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부위원장			
가족사항			

### 30. 서 순 자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회원			
가족사항			

### 31. 적 보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회원			
가족사항			

### 32. 정 승 명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회원			
가족사항			

### 33. 정 옥 자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회원			
가족사항			

### 34. 김 양 미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회원			
가족사항			

### 35. 고수준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회원			
가족사항			

### 36. 강 희 분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회원			
가족사항			

### 37. 이 준 희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회원			
가족사항			



### 38. 윤 강 현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
직업		E-mail	██████████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청년동맹 회원			
가족사항			

### 39. 김 경 희(필명 김 지 영)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45. 9. 11	집전화	██████████
국적	한국	직장전화	
여권번호	여권을 받지 못함	Fax	
직업		E-mail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가족사항			

### 40. 이 중 현(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가족사항			

#### 41. 김 진 향(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가족사항			

#### 42. 김 대 천(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가족사항			

#### 43. 안 석 교(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가족사항			

#### 44. 정 규 명(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 한민련 유럽본부 의장			
가족사항			

#### 45. 이 영 준(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가족사항			

#### 46. 장 일 중(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중앙위원			
가족사항			

#### 47. 윤 운 섭(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가족사항			

#### 48. 김 중 안(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1940. 5. 25	집전화	██████████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세종학교 교장			
가족사항			

#### 49. 양 원 자(독일)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가족사항			



### 50. 이 픽 세(프랑스)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화가, 김치식당 경영			
가족사항			
-이응로화백의 조카 39년간 불입국			

### 51. 정 성 배(프랑스)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약 력		입국불허사유	
가족사항			

### 52. 직 기 환(스위스)

개 인 정 보		연 락 처	
생년월일		집전화	██████████
국적		직장전화	
여권번호		Fax	
직업		E-mail	
주소	████████████████████		
약 력		입국불허사유	
- 민중출판사 대표		- 동백림사건 이후 불입국	
가족사항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 가입신청서

조국은, 민족은, 동포는 하나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수만명의 동포들이 남북을 오가고 철길과 도로가 열리는 지금 일본, 유럽, 미주 등 해외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감수하며 조국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오셨던 민주통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고국방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아 끝내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선생, 한통련의 전신인 한민통이 1978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면서 42년동안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한통련의장 광동의선생, 70-80년대 민주화운동과 통일문제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기여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온 독일 뮌스터대학의 송두율교수 등 해외민주인사 모든 분들은 이역만리 먼 외국에서 살아가면서도 조국애와 민족애를 잃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치셨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음습한 밀실에서 애국적 해외동포들과 민주인사를 반국가인사로 낙인찍고 간첩으로 조작한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모의 임종도 가로막고, 유골이 되어 선산에 묻히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은 반인륜적인 고국방문 금지를 일삼아 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해외에서 조국의 민주와 통일을 위하여 외롭게 노력해온 해외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이자 도리입니다.

이름	
소속단체	
직책	
연락처	H.P :
	사무실 :
E-mail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